

렌터카  로 떠나는  
일본  日本 중부  
기후현·도야마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은 여행자의 '로망'이다. 패키지 여행은 일정과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하지만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원하는 시간에 가고 싶은 곳을 다닐 수 있다. 렌터카와 여행지를 예약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면 렌터카로 알찬 여행을 할 수 있다. 일본 중부 기후현과 도야마현의 중소도시는 렌터카로 떠나기 좋은 곳이다.

글·사진 백승렬 기자 취재협조 일본 기후현·도야마현







# 岐 阜 県

렌터카로 떠나는 일본 중부

## 기후현

산마치 거리와 시라카와고에서 일본 전통 가옥이 늘어난 거리를  
거닐고 해발 2천m 이상의 신호타카에서 설국을 즐긴다.





1 눈 내리는 미야가와강 나카바시  
2 기념품 가게 3 다카야마진야 아침시장 입구  
4 16대째 가업을 이어온 니카슈조 양조장

내리는 미야가와강 풍경은 어두운색의 에도시대 건물과 강가의 버드나무, 맑은 강물에 내려앉은 솜사탕 같은 눈송이로 인해 시간 속을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선사했다. 산마치는 1시간 정도이면 매력적인 명소들을 걸어서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담하다. 옛 풍경이 느껴지는 거리를 따라 발길을 옮기면 그곳이 바로 명승지이다. 차부라고 부르는 인력거꾼이 끄는 관광 인력거를 타고 20여분 동안 구석구석을 돌며 각 명소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인력거에서 내린 뒤 걸어 다니며 거리의 음식도 맛보았다. 그리고 16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양조장과 기념품 가게 등 구석구석을 돌아보았다.



일본인들의  
'마음의 고향'  
다카야마

렌터카를 타고 나고야에서 출발할 때는 비가 내렸는데 산악지대인 기후현 다카야마시(高山市) 산마치(三町) 거리에 도착했을 때는 함박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다. 일본의 중앙에 있는 기후현의 다카야마시는 해발 570m에 들어선 산악도시다. 동쪽으로는 히다산맥, 서쪽으로는 하쿠산국립공원이 펼쳐져 있는 분지로 1934년 철도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산간 오지였다. 다른 곳에 비해 외부인의 왕래가 뜸했던 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옛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담백함을 느낄 수 있다. 공기가 맑고 가장 높은 건물이 3층이다. 시야를 가로막는 고층 빌딩 하나 없어 그곳에 서면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하다. 다카야마시를 동서로 가르는 미야가와강 동쪽 시내 중심에는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거리인 산마치가 있다. 좁다란 골목 양쪽으로 일본 전통 양식의 옛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골목을 따라 전통 음식점과 찻집, 양조장, 기념품 판매점이 있다. 산마치에 도착했을 때 거리에는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카바시(中橋) 위에서 본, 눈





나카바시 건너 강 서쪽에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막부시대 관청 건물인 다카야마진야(高山陣屋)가 있다. 다카야마는 1692년부터 도쿠가와 막부의 직할지로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됐다. 1651년에 지어진 이 건물에 관공서가 들어섰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행정, 재판, 치안, 세무 등이 이루어졌다. 진야 앞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거나 만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아침 시장이 열린다. 농산물과 직접 만든 간장과 된장 등 가공품을 볼 수 있었다.

1, 3 아침 시장에서 물건 파는 주민  
2 다카야마진야



설국 속  
신호타카  
로프웨이

산마치 관광을 마치고 차를 타고 1시간 30분 정도 눈 내리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려 일본에서 유일하게 2층 곤돌라가 있는 신호타카 로프웨이에 도착했다. 신호타카 로프웨이는 기후현 다카야마시의 벽지 마을에 있다. 로프웨이를 타고 오르면 일본에서 해발 고도가 3번째로 높은 산인 오쿠호타카다케를 비롯해 호타카 연봉을 감상할 수 있다. 로프웨이는 신호타카온센역(해발 1,117m)과 나베다이코젠역(1,305m)을 이어주는 제1로프웨이, 시라카바다이라역과 니시호타카구치역(2,156m)을 이어주는 제2로프웨이로 구성되어 있다. 제2로프웨이는 2층으로 설계된 곤돌라다. 환승역인 나베다이코젠에는 온천욕과 족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해발 2,156m인 니시호타카구치역에 내리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우체통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우편물은 매일 수거돼 행선지로 배달된다. 우체통을 지나 전망대로 나가면 2천m 이상 높은 산봉우리를 둘러볼 수 있다. 관광객들은 눈사람을 만들어 놓은 촬영대에서 표고와 그 날의 온도를 표기한 풋말을 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 설국으로 변한 전망대 아래 등산로에선 관광객들이 산책 도중 눈싸움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 1 신호타카 로프웨이 전망대 앞 눈 덮인 산책로
- 2 로프웨이 환승역
- 3 전망대 우체통
- 4 신호타카 로프웨이 2층 곤돌라 포스터



세계문화유산  
시라카와고

시라카와고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기후현 시라카와촌(白川村)이며, 면적은 356.55km<sup>2</sup>, 인구는 1천400여 명으로 인구밀도가 매우 낮다. 촌 면적의 96%가 숲으로 뒤덮여 있고, 마을의 해발고도는 500m 정도로 하쿠산(2,702m) 같은 높은 산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온대 기후지만, 세계적으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연 강수량은 1991~2020년 평균 2,458mm에 달하며 연 강설량 평균은 무려 972cm, 적설량 예선 2006년 297cm를 기록했다. 이런 기후 때문에 독특한 지붕 형식이 만들어졌다.

산간 오지이지만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매년 200여만 명이 찾아온다. 절반 정도가 일본 인이고 나머지는 한국과 중국, 동남아, 유럽 등에서 방문한다. '리틀 교토'로 불리는 다카야마에서 버스가 수시로 운행된다. 에도시대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 지어진 100여 채의 합장 양식 가옥이 보존돼 있다. 지붕 모양이 양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형상을 닮았다. 합장 양식 가옥은 억

새를 두껍게 얹은 지붕이 있는 목조 건물이다. 경사가 매우 가파른데 지붕이 눈의 하중을 이겨내기 위함이다. 합장 양식 가옥의 내부는 다 다미가 깔린 방들이 미닫이문으로 구획돼 있다. 거실 중앙에는 사각 형태의 화로가 설치돼 있어 찻물을 끓일 수 있다.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 창문 밖을 내다보면 마을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해발 1,700m 넘는 주변 높은 산들이 은백색의 하얀 눈을 인 채 마을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었다. 마을을 안내한 문화해설사는 "지붕은 10~20년마다 새로 있는데, 규모가 큰 가옥의 경우 수십 명이 달려붙어 작업을 벌이는 모습이 장관"이라고 전했다.



1 시라카와고 2 기념촬영하는 관광객







1 시라키와고 다리를 건너는 관광객 2 마을 입구 석등 3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라키와고

마을 입구에는 2개의 석등이 있다. 가옥이 나무와 역세로 만들어진 만큼 화재 발생 때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을 곳곳에 방수층이 있었다. 마을은 전통 집과 60년대식 건축물이 공존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합장 가옥과 흰 눈이 덮인 하쿠산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했다. 마을 입구에서 30분 정도 걸으면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에 도착한다. 세계문화유산 마을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레트로  
구조시와  
도키시

시라카와고에서 1시간 30여분을 달려 산마치 거리 정도의 옛 모습은 아니지만 복고풍 옛 거리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지방 소도시 구조시(郡上市)에 도착했다. 구조시는 옛 거리 풍경뿐만 아니라 복고풍의 물건을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샘플 체험 공간들이 여럿 있다. 산푸루 샘플 공방에서 종이접기과 약품을 재료로 휴대전화 거치대를 만들어 보았다. 향수를 느끼게 하는 물건들도 전시돼 있었다. 전시품 중에는 전설적인 프로레슬러였던 김일과 아키노에 관한 신문 기사도 포함돼 있었다. 도키시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좋아 나가노현과 기후현에 걸쳐 있는 일본 중앙알프스의 온타케산(3,067m)을 선명하게 보는 행운도 따랐다. 온타케산은 일본 백대 명산 중 하나로, 현재도 활동하는 활화산이다.



- 1 구조시 복고풍 거리
- 2, 3 산푸루 샘플 공방
- 4 프로레슬러 김일과 아키노에 관한 신문 기사
- 5 체험으로 만든 휴대전화 거치대
- 6, 7 도키시와 일본 중앙알프스의 온타케산





# 렌터카로 떠나는 일본 중부 도야마현

‘일본의 베네치아’ 이미지시 우치카와 강과 일본 북알프스 쇼가와 강 협곡에서 풍경에 취했을 때 도야마만 해산물은 입맛을 사로잡았다. 렌터카 여행의 여유로움이 안긴 선물이었다.

# 富山県





‘일본의 베네치아’  
이미즈시  
우치카와강



- 1 우치카와강
- 2 자전거 타고 다리 건너는 주민
- 3 베이카트(왼쪽)와 베이구륀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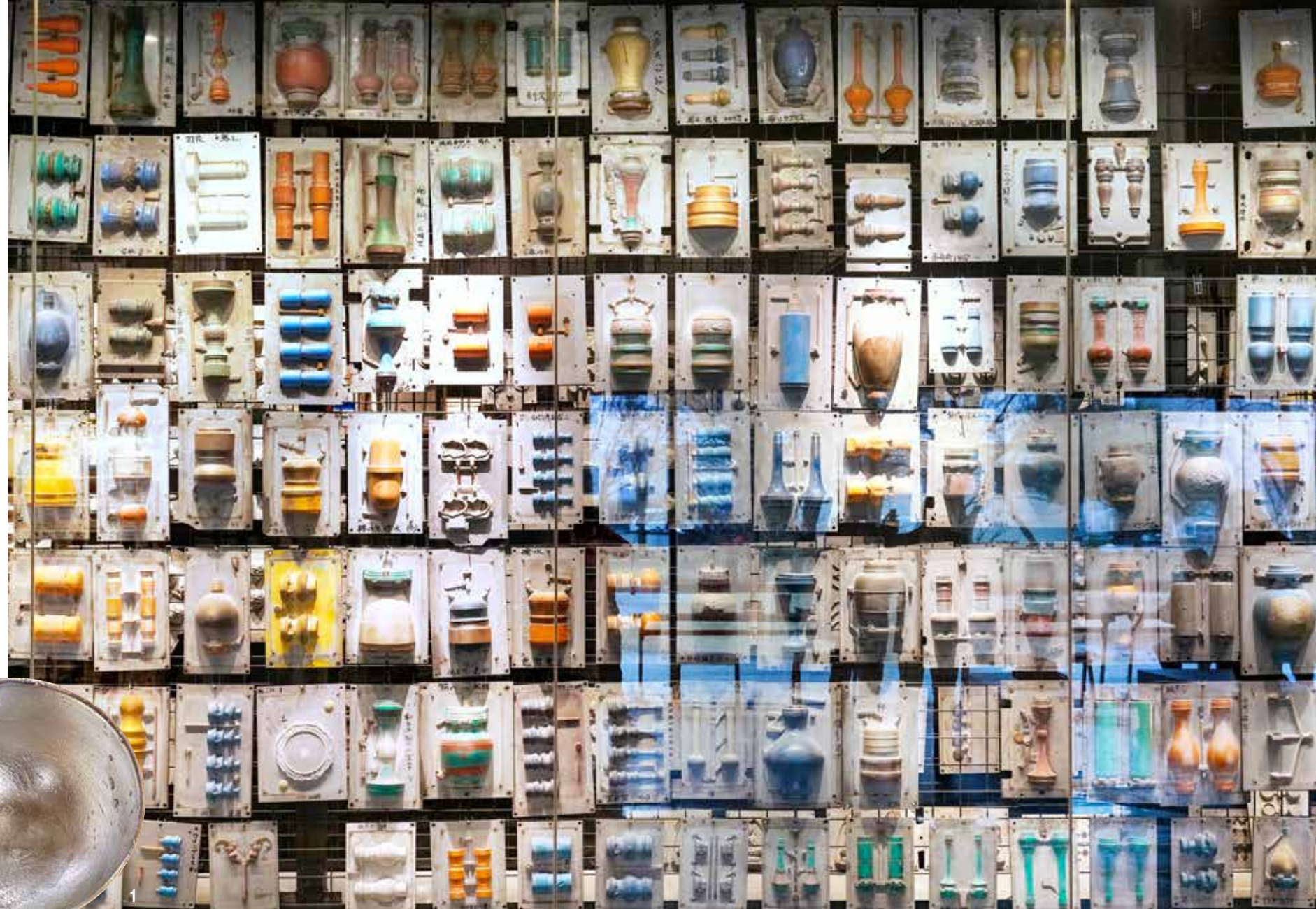
기후현 북쪽에 있는 도야마현은 일본 북알프스의 높은 산맥을 배후에 두고 있다. 맑고 깊은 바다와 넓은 평야의 곡창지대에서 나는 신선한 해산물과 농산물로 유명하다.

도야마현에서 가장 먼저 들린 곳은 일본의 베네치아라 불리는 우치카와강이 흐르는 이미즈시(射水市)였다. 해운과 어업이 발달한 이 지역에는 도야마 어항에서 시작하여 해안선을 따라 약 3,420m를 흐르는 우치카와강이 있다. 이 강은 옛날부터 배가 다니는 운하로 이용되는 등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강가에 정박한 어선과 강을 따라 늘어선 목조 건물, 강을 가로지르는 12개의 다리가 만들어내는 경관은 한 폭의 그림 같다. 이 때문에 ‘일본의 베네치아’라고 불린다. 이곳을 골프장 카트 같은 베이카트와 3륜 전동차동차인 베이구륀을 타고 둘러볼 수 있다. 베이카트는 국제면허증만 있으면 외국인도 직접 운전할 수 있지만 베이구륀은 별도의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야 한다. 산노다리(山王橋)에는 인(人), 애(愛), 몽(夢), 심(心) 글씨를 표현한 손 모양 조형물 4개가 있다. 다른 다리들도 저마다의 특색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주물 산업이  
유명한 다카오카시와  
주조공장  
와카쓰루 주조

우치카와를 둘러본 뒤 1시간 30분 정도 서쪽으로 차를 타고 다카오카시(高岡市)로 이동했다. 다카오카시는 주물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10여 곳 있는데, 일본에서 사용하는 주물제품의 대부분을 생산한다. 주석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사쿠를 방문했다. 건물에 들어서면 이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수천개의 형틀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그 모습이 마치 설치미술품과 같았다. 간혹 형틀이 없는 빈 곳이 있는데 형틀을 공장 안으로 가지고 가 제작에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2



1 노사쿠에서 사용하는 형틀 2 체험으로 만든 잔  
3 주물 공장에서 일하는 장인들 4 주물 제작 체험



3



4



6



5



7

5, 6 와카쓰루 주조 내부  
7 참나무통에서 위스키를 뽑는 모습

쇼가와강 유람선을 타러 가기 전 일본 정종과 위스키를 만드는 와카쓰루 주조를 들렀다. 이곳에서는 맛있는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 참나무통을 전량 외국에서 수입한다. 회사 관계자는 “방문자들이 직접 참나무통에서 원하는 위스키를 뽑아서 술병에 넣은 뒤 자신이 제조에 참여했다는 사인을 넣을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위스키 마니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며 참나무통에서 위스키를 뽑는 시범을 보여주었다.



계곡이 아름다운  
쇼가와강 협곡과  
수산물이 풍부한  
히미항

계절마다 아름다운 계곡을 만들어내는 도야마현 쇼가와강 협곡을 운행하는 유람선을 탔다. 도야마현 서부 도나미시에 있는 쇼가와 협곡은 산거 촌락과 툽업 재배로 유명하다. 깨끗한 물과 협곡이 만든 아름다운 계곡은 관광객의 시선을 빼앗기에 충분했다. 계곡이 흰 눈으로 덮여 산거촌락과 툽업 재배지 등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관광객들은 유람선에서만 바라보는 경치만으로도 경탄했다. 쇼가와 유람선 여행을 끝내고 맛있는 해산물로 만든 점심을 먹기 위해 북서쪽으로 1시간 정도 이동해 히미시(氷見市) 항구에 있는 히미반야기이로 갔다. 이곳은 히미시에서 나는 농산물과 주변에서 잡히는 해산물을 판매하는 건물이 동서남북 관으로 지어져 있는데 한국의 농수산물판매장과 비슷했다. 인근 해역에서 잡은 생선으로 만든 요리를 북알프스를 바라보며 맛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하지만 이날도 진눈깨비가 내려 하늘에 구름층이 두꺼웠다. 특히 바다 건너 해안에 구름이 많아 북알프스를 볼 수 없었다. 히미항에서 잡은 생선으로 만든 신선한 요리를 맛보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2 쇼가와 강 협곡 2 유람선  
3 히미항에서 잡은 해산물 4 히미항 해변 공원





농산물이  
풍부한  
구로베시



구로베시(黒部市) 외곽에 있는 고고구로베(KOKO 黒部) 휴게소에 들렀다. 이 휴게소는 구로베시 농협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곳이다. 북알프스 산맥과 구로베시의 평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공산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한국의 농협 로컬푸드와 하나로마트를 합쳐 놓은 것 같았다. 지역 주민이 싼 가격의 농산물과 공산품을 구매하고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유통과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다. 북알프스의 높은 봉우리를 볼 수 있는데 필자가 도착했을 때는 구름이 많아 부분적으로만 보였다. 휴게소 지점장은 여행하는 동안 날씨가 좋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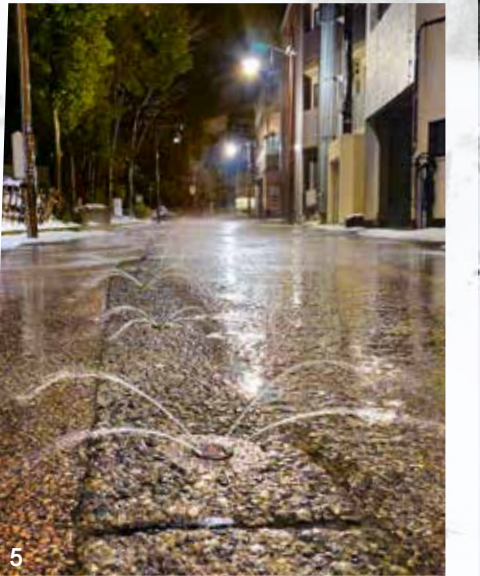
1 고고구로베 휴게소 2 전망대에서 바라본 고고구로베 휴게소와 북알프스  
3, 4, 5 후로바카 6 컨테이너 호텔

아 북알프스를 보지 못했다고 하자 “북알프스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쉽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우문현답을 해 박장대소했다. 인근에는 1인 사우나, 가족 사우나, 대중 사우나 등을 갖춘 사우나만 있다는 의미의 후로바카가 있었고 그 옆에는 저렴한 숙박시설인 컨테이너 호텔이 성업 중이었다. 자유여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싼 가격의 농수산물을 사서 요리를 해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1 우나즈키 온천이 있는 구로베강 협곡
- 2 구로베강 협곡에 있는 호텔
- 3 우나즈키온센 역으로 들어가는 열차
- 4 우나즈키온센역
- 5 도로가 얼지 않게 온천물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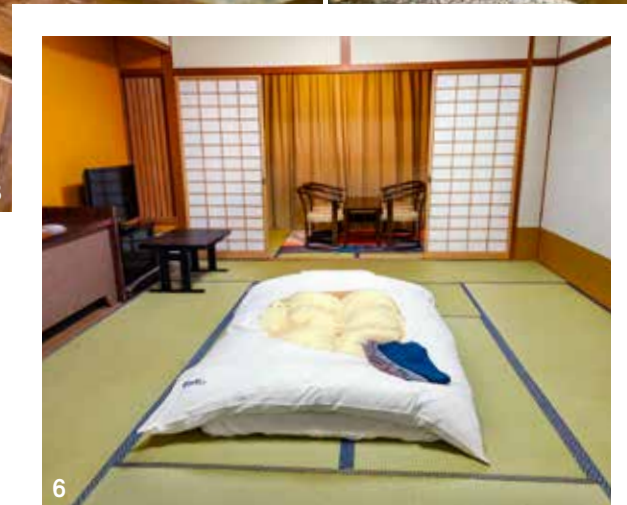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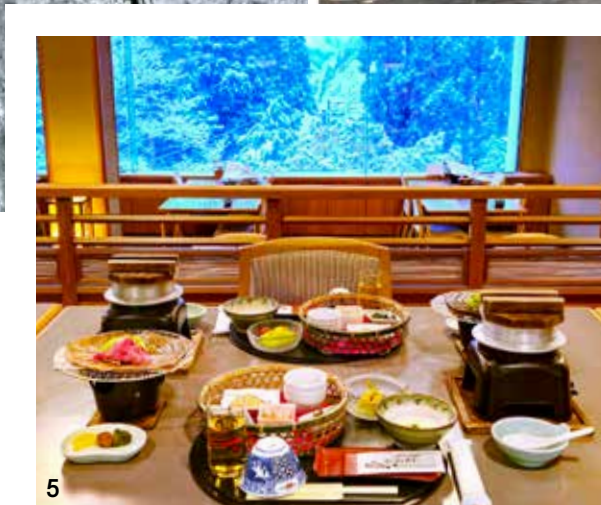


물이 좋은  
구로베강  
우나즈키 온천



우나즈키 온천에는 협곡철도의 출발역이자 도야마현 지방철도역의 중점인 우나즈키온센역이 있다. 협곡 열차는 구로베강 상류의 구로베댐을 건설할 때 물자를 나르기 위해 건설했던 것인데 댐 건설이 끝난 뒤 폐쇄하지 않고 관광열차로 바꿔 운행하고 있다. 협곡 열차의 운행 기간은 4월부터 11월 말까지 운행하며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려 중단된다. 우나즈키온센역에서 상류 쪽으로 보면 붉은색의 신야마비코 다리와 코고멘교가 하얀 눈과 어우러져 아름답게 보였다. 우나즈키온센역은 관광열차의 출발역이기도 하지만 도야마에서 출발하는 도야마현 지방열차의 종착역이다. 기차여행을 하는 관광객은 도야마시까지 신칸센으로 와서 지방열차로 갈아타면 이 온천까지 올 수 있다.





**료칸 여행의  
즐거움**

일본 여행의 즐거움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온천욕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료칸 여행이다. 신호타카 로프웨이 인근의 온천은 유황 성분이 많다. 신호타카 로프웨이역에 내렸을 때 유황 냄새가 났다. 인근 계곡은 일본에서 노천탕이 많기로 유명하다. 해발 800m에 있는 야마노호텔도 계곡에 노천탕이 있다. 눈 덮인 산을 바라보고 함박눈을 맞으며 온천욕을 즐기는 모습은 무릉도원을 연상시켰다. 온천욕을 즐긴 뒤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뽕송뽕송한 피부의 느낌

- 1 기후현 호텔과 계곡 노천탕
- 2, 3, 4 기후현과 도야마현의 호텔 노천탕
- 5 절경을 감상하며 맛보는 조식
- 6 쇼가와소 다다미방

은 여행자의 피로를 풀어주기에 충분했다. 창밖의 눈 덮인 절경을 보면서 아침을 먹는 즐거움은 컸다.

료칸 여행의 색다른 체험은 일본 전통 건축인 다다미방에서 잠을 자는 체험이다. 허리를 지질 수 있는 온돌방의 따뜻함과 서구식 침대의 폭신함은 없었지만, 매끈하면서 까끌까끌한 듯자리의 느낌이 좋았다. 체온을 충분히 유지할 정도의 이불과 쾌적한 실내 공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한 기분이 들게 했다.





먹거리 여행과 렌터카 여행



산마치 거리에서는 쌀과자에 소고기 초밥 2개를 얹은 히다규를 판매하는 가게 앞에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섰다. 이들 업소는 더 많은 관광객이 맛보게 하기 위해 손님 1명 당 1개의 히다규만 판매한다. 또 포장 없이 초밥을 올려놓은 쌀과자만 팔아 음식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도야마현에서 잡은 신선한 생선으로 만든 초밥, 간장소스를 입힌 쌀로 만든 새알심, 간장소스와 미소를 입혀 부드럽게 만든 모찌, 그릴에 구운 소고기 꼬치 등은 도야마현과 기후현에서 새롭게 맛본 먹거리다.



1 렌터카에서 바라본 도나미시  
2, 3, 4 산마치 거리 히다규, 히미반야가와 정식, 도야마현 초밥  
5 렌터카 안에서 본 나고야~기후 고속도로

렌터카를 타고 지나면서 차창 밖으로 중소 시골 도시의 풍경을 여유롭게 볼 수 있었다. 나고야에서 기후현으로 가는 산간 고속도로에서는 함박눈이 내려 길가의 높은 산을 설국으로 만들었다. 이미즈시로 가는 길의 소도시와 농촌 풍경은 가지런히 잘 정돈된 주택들, 텅 빈 논과 밭을 볼 수 있었다. 도야마현 중소도시를 지날 때는 논과 밭에 파릇파릇한 마늘과 보리가 자라고 있었다. 비 내리고 눈발 날리는 날씨 탓으로 렌터카를 타고 달릴 때 북알프스는 아스라이 보이는 넓은 들판 건너편에서 자신을 쉬이 드러내지 않았다. ♡

